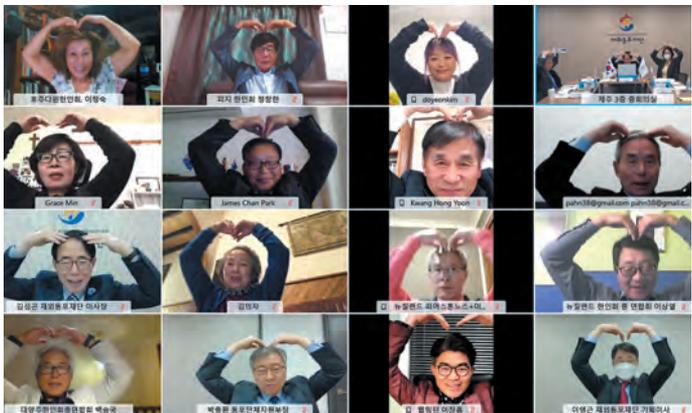




특 집 _ 재외동포재단, 비대면 '찾동' 간담회로 애로사항 청취
 기획 1 _ "일자리 · 코로나 격차 · 불평등 해결에 전력 다하겠다"
 기획 2 _ 국적법 개정안 "현실 반영 안한 탁상행정" 동포사회 반발
 화 제 _ LA 폭동 29주년... "한인 · 흑인 어깨 걸고 나가자" 한 목소리



257개 한인회장과의 '찾동'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전 세계 257개 한인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쳤다. 보통 때 같으면 두 달에 20~30개 한인회를 방문하기도 어려울 텐데 코로나 덕분에 동영상으로 '찾동' ('찾아가는 동포재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대륙별로는 아·중동, 아시아, 유럽, 중국, 캐나다, 중남미, 대양주, 러시아·CIS, 미국 등 총 9개 대륙을 돌았고 일본은 7월에 할 예정이다. 주로 대륙별 총연이 연락을 도와주었고 미국은 재단에서 130여개 한인회를 직접 연락하여 진행하였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전 세계 모든 한인회장들이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동포들을 위해 마스크 보급 등 다양한 도움을 주며 그야말로 재단 구조대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헌신적으로 동포사회를 돌봐주신 각 지역 한인회장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각 지역 한인회장들의 대표적 민원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백신 맞은 동포들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요청인데 이는 현재 외교부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국과의 외교적 합의, 백신 접종에 대한 과학적 검증 등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수개월 내로 자가격리 등 각종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집에만 갇혀 있어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의 요청이다. 심리 치료를 위한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등 본국 정부, 혹은 민간단체들의 원격 의료 서비스 지원이 요청된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셋째, 미국, 캐나다, 중남미, 유럽 등 이민 1세대들이 은퇴하면서 한인회가 침체되거나 1.5 혹은 2세대 회장들이 등장하면서 한인회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강화와 젊은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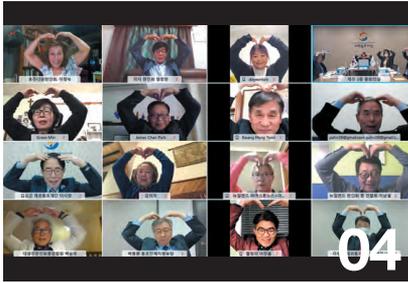
넷째,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재외동포재단의 각종 지원에 감사하면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원하고 있다. 작은 한인회에 대한 배려,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등 재단에서 이미 신경 쓰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에 발맞춘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법안의 개선이다. 즉 복수국적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복수국적 확대,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개선(우편투표 도입 등), 국내와 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협업, 조선족 동포, 고려인 동포, 재일 동포들의 입국 및 국내 거주 시 차별로 보이는 정책 개선 등이다. 이는 해당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특히, 가장 어려운 지역인 아프리카 중동 총연이 잘하고 있었고, 중남미 지역은 정치·경제적 환경의 어려움으로 동포사회와 한인회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다. 6월부터는 한글학교와 차세대 단체 그리고 각종 경제단체들과의 '찾동'이 기다리고 있다. 비행기를 안 타고도 동포들을 손쉽게 만나게 해주는 IT 문명에 감사드린다.





- 02 권두언 257개 한인회장과의 '찾동'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04 특집 재외동포재단, 비대면 '찾동' 간담회로 애로사항 청취
- 06 기획 1 "일자리·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 다하겠다"
- 07 기획 2 국적법 개정안 "현실 반영 안한 탁상행정" 동포사회 반발
- 08 화제 LA 폭동 29주년... "한인·흑인 어깨 걸고 나가자" 한 목소리
- 10 글로벌 코리아 캐나다 동포 최등용 대표, 한인 앙로원에 100만달러 기부
강흥원 호주 시드니 신임 한인회장 "한인회 재정 독립 힘쓸 것"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 참여 광고 영상 '폴리 어워즈' 수상
- 12 한민족 공감 1 박병석 국회의원 "러시아 16만 고려인 정체성 유지 지원"
- 13 한민족 공감 2 한국 공군의 뿌리 '월로우스 비행학교' 사진 첫 공개
- 14 유공 동포 미국서 독립운동자금 지원 하희옥 선생 국립현충원 안장
- 15 주목! 차세대 '美 조지아주, 영향력 있는 아시안 25인' 에 김순원 씨 선정
- 16 동포소식 "아시안 이민 역사 가르치자" 미 정계·한인들 움직임 외
- 19 동포 캘린더 美워싱턴주 스포츠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선다 외
- 20 지구촌 통신원 1 연해주의 고려인 대표적 정착지 푸칠로프카 학교에 역사 기념관
- 21 지구촌 통신원 2 재미동포 주력업종 세탁업, 코로나 직격탄... 한인 폐업 잇따라
-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중남미 지역 한인회장들과 화상 간담회 개최 외
- 24 유관단체 소식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해외입양동포 대상 간담회 외
- 25 기고문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한인회
한동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기고문, 전 필리핀대사
- 26 재단공지 재외동포 경제단체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외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생생한 동포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읍시다”

재외동포재단, 비대면 ‘찾동’ 온라인 간담회로 애로사항 청취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재단은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찾아가는 동포재단(이하 찾동)’이라는 비대면 화상 접촉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생생한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해 재단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라며 “한인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동포단체와의 소통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중동, “열악한 의료환경 백신 보급 희망”

재단은 3월 15일 아프리카·중동지역 한인회장들과 처음으로 ‘찾동’ 간담회를 열었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송은희 이



아프리카·중동지역 ‘찾동’ 행사

란 한인회장, 김근욱 짐바브웨 한인회장, 김정봉 세네갈 한인회장, 김병태 케냐 한인회장 등 39명이 함께했다.

한인회장들은 “아프리카의 경우 의료 환경이 열악해 백신 접종을 받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지에서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을 보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재단 차세대 사업 신청 절차 개선, 재외국민 해외 소득 과세 관련 명확한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시아, “취약계층 지원 요청”

재단은 아시아 지역 한인회장들과 4월 7일 ‘찾동’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필리핀,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7개 지역 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한인회장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동포 지원, 백신 접종 확대, 한국 정기 항공편 취항 재개 등을 요청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대륙·지역별 한인회와 온라인 간담회인 ‘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를 열었다.

김성곤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취약계층 동포분들을 위한 재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관광객 급감으로 유학생 힘들어”

4월 21일 유럽지역 ‘찾동’ 행사에는 유제한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장, 박선유 재독일한인회총연합회장을 비롯한 14개국 35개 현직 한인회장



유럽지역 ‘찾동’ 행사

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국적 동포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한인 차세대 네트워킹 강화, 백신 접종 재외동포 입국 시 격리 면제, 동포단체 지원금 및 코리아넷 사이트 개선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한국 관광객 급감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찾동’의 정기적

개최와 독일 등에 재외동포재단의 주재관 파견을 요청했다.

관할공관과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당부한 김성곤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인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해소하기 위한 소통 활동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지원단 발족”

4월 23일 열린 제4차 중국 지역 ‘찾동’ 행사에는 하정수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장, 이근화 중국강서성한국인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전·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하정수 회장은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응원하고,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동포 국내 입국 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또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편·전자 투표 도입과 투표장소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캐나다, “‘찾동’은 모국 소통창구” 환영

4월 26일 개최된 제5차 캐나다 지역 ‘찾동’ 행사에는 주점식 캐나다한국인회총연합회장, 남기임 주몬트리올한국인회장 등 14명의 현직 한인회



캐나다지역 ‘찾동’ 행사

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지어 사용이 어려운 동포 1세를 위한 코로나 극복 한국어 심리상담, 아시안 혐오범죄 대응, 재단 지원사업 개선, 동포청 설립, 재외선거 우편 투표 도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윤희 노바벨리 한인회장은 “13년간 한인회장을 하면서 재외동포재단과 직접 소통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이사장은 “수고해 주시는 한인회장님과 총연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다며, 제안을 재단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남미, “백신접종자 모국 자가격리 완화” 요청

5월 10일 열린 중남미 지역 ‘찾동’ 행사에는 유영준 중남미 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정관민 수석부회장, 김종훈 사무총장 등 11개 지역 18명의 한인회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외동포 백신 접종과 모국 방문 시 자가격리 조치 완화를 건의했다. 그리고 콜롬비아와 칠레에서 반정부 시위로 불안한 치안 상황과 관련하여 한인사회의 우려 분위기를 전했다.

대양주, “참전용사·입양동포 지원 늘려야”

5월 12일 대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찾동’에는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피지의 14개 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대양주지역 ‘찾동’ 행사

간담회에서는 한인회관 건립, 한글학교 활성화, 동포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현안을 협의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와 입양 한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장흥 뉴질랜드 웰링턴한인회장은 “비대면 간담회지만 오히려 업무 관련 상호 소통과 정보 교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힘든 상황에서도 수고해주시는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러시아·CIS, “고려인 한국어 교육 강화 필요”

5월 21일 러시아·CIS 지역 ‘찾동’에는 노성준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과 조바실리 전 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회장 18명이



러시아·CIS지역 ‘찾동’ 행사

참석했다. 이들은 각종 지원 강화 방안과 한국어교육 지원,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조치 완화, 의료영사 파견 등을 건의했다.

노성준 회장은 “코로나19에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고 각 지역 동포사회의 애로 사항을 직접 건의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이 자리를 반겼다. 김성곤 이사장은 “러시아·CIS 지역은 재외동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꾸준히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미국,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 모국 공조 필요”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동’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부, 서부, 동부 2곳 등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한인회장 66명이 참석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연대 대응과 모국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고,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조치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사론 황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은 “재단과 미국 지역 한인회장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

“일자리 · 코로나 격차 · 불평등 해결에 전력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국정청사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간 역점 추진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등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고,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무엇보다도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이상으로 내다 보며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출과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되는 등 경기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으로 그 속도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성장률 전망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재정 투입으로 더 빠른 회복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을 부동산 정책으로 꼽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지난 재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도 끝난 만큼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며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년 간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무엇인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4년 동안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북핵·미사일 위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열거하며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은 늘 있어왔지만 국민들

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노력에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국적법 개정안

“현실 반영 안한 탁상행정” 동포사회 반발

“잠재적 병역기피자 인식 바뀌야, 병역 넘어 인권문제” 지적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문제를 다루는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민의견을 듣는 온라인 공청회를 5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 간이국적 취득제도’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다룬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다뤘다.

특히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구제방안으로 내놓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최대 피해자인 미주 한인 2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반발도 커서 동포사회 관심이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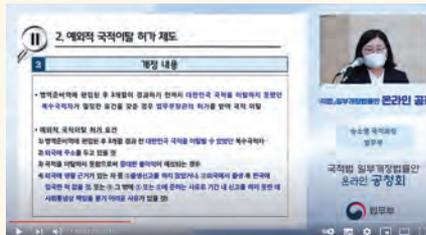
이날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 혹은 ‘중대한 불이익’을 증명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게 된다고 소개했다.

강성식 변호사는 “개정안에 명시된 ‘외국에서 출생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은 ‘국내에 장기체류한 사실이 없고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는 게 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이라는 조항에는 “국내 체류기간이나 학업수행 여부, 경제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범위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5월 26일 개최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관련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정광일 사업이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법무부 관계자

현행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태생부터 ‘원정출산에 대한 징벌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데에 주목한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미주 한인들은 해외 이주자들을 잠재적 병역 기피집단으로 의심하는 분위기를 현행 국적법에서 느낀다”며 “18세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못 했을 때 20년이 지난 38세 때 국적을 정리할 기회를 준다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 제한은 국적법이나 병역법 문제를 넘어 인권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개정안의 ‘국적이탈 허가 요건’과 ‘요건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중대한 불이익’의 시기와 기준 또한 매우 애매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거주국에서 겪는 불이익을 구제할 수 없다”

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동포들의 답답한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국적이탈 시기를 특별하게 연장하는 소극적인 조항 신설보다 해외 이주자들의 거주국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국 정부의 통 큰 국적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주 한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채운 족쇄는 그대로 둔 채, 법 조항과 과정만 바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청회에 참가한 미주 한인회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구제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규제의 잣대를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시민권을 지닌 ‘암체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겨냥하면 된다”고 밝혔다. **창**

LA 폭동 29주년... “한인·흑인 어깨 걸고 나가자” 한 목소리

한인·흑인 사회 손잡고 잇단 행사... “서로 상처 이해하고 협력”

□ 주 한인 이민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29주년을 맞아 한인인과 흑인이 손을 맞잡는 화합의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LA시(市)는 4월 29일(현지시간) LA 폭동 사태의 교훈을 되살리고 한인 사회와 흑인 커뮤니티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2년 4월 29일 발생한 LA 폭동은 교통 단속에 걸린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관 4명에게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분노한 흑인들이 LA 도심으로 일제히 쏟아져 나와 폭력과 약탈,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다.

흑인들의 분노는 한인 슈퍼마켓에서 흑인 소녀가 총격으로 사망한 ‘두순자 사건’과 맞물리면서 한인에게 분출됐다. 당시 LA 도심에 있던 한인 상점 2천300여 곳이 약탈, 방화 피해를 봤다.

‘흑인 목숨 소중’, ‘아시아 증오범죄 규탄’ 계기로 유대 강화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에릭 가세티 시장과 박경재 총영사가 축사를 했다. 행사에는 한국계 존 리 시의원, 현지 흑인 사회의 중심점인 퍼스트 아프리카 감리교회의 에드가 보이드 목사 등 한인·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에드거 보이드 목사는 토론회에서 “LA 폭동은 한인인과 흑인 사회 간 관계에서 전환점이었다”며 “한인과 흑인 공동체는 함께 대화하고 서로 배우고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보이드 목사는 “두 공동체가 함께 도전 과제를



극복하면 다른 소수민족 공동체에도 확실한 모범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며 “서로 어깨를 걸고 손을 맞잡고 함께 앞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흑인 가정에 입양돼 LA시 소방국 부국장을 지낸 에밀 맥 LA 한인회 부회장은 “한인과 흑인 사회 모두 깊은 상처를 가진 역사가 있다”며 “두 공동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입었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 부회장은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인종차별 항의 시위 때 두 공동체가 협력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역사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다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낸 일”이라고 역설했다.

LA 폭동의 교훈을 젊은 세대에게 잘 알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보이드 목사는 “우리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함께 협력하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한다”고 제안했고, 맥 부회장은 “밀레니얼 세대가 역사를 이해



2



3

해야만 그들이 햇볕을 들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모두가 기회와 희망을 누리고 평등과 정의가 모든 일의 핵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992년의 교훈을 기억하자"고 당부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LA 폭동 이후 29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소수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을 목격하고 있다"며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증오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는 LA시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LA 한인회와 퍼스트 아프리카인 감리교회는 한인·흑인 분야별 리더 30여 명이 참석하는 포럼도 별도로 열었다. LA의 대표적인 흑인 정치인인 홀리 미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서로의 아픔과 분노를 넘어 무너진 다리를 세워나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다.

포럼에서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인과 흑인 사회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아시아인 증오범죄 규탄에 힘을 합쳤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고 화답했다.

LA 폭동 30주년까지 화합 행사 이어져

같은 날 LA 한인회는 퍼스트 아프리카인 감리교회와 함께 한인과 흑인 사회의 정치·경제 분야별 리더 30여명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주 LA 문화원도 이날 '하모니 인 LA'(Harmony In LA)라는 제목의 한·흑 문화교류 온라인 특별공연을 열었다. 한인과 흑인 아티스트들은 행사에서 음악과 무용 공연을 선보였고, 한국 전통 가락과 흑인 특유의 신명 나는 리듬이 어우러지는 협업의 무대도 펼쳤다.

LA 폭동 29주년 행사를 계기로 한인과 흑인의 화합, 교류 행사는 내년 30주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LA 영사관은 올해 상반기 흑인 인플루언서를 초빙해 한식 조리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한다.

흑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하고, 방역 제품과 한국 식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LA 폭동 30주년 학술 세미나와 한글·영문 문학 공모전, 한·흑 공동 문화 축제 개최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한복과 흑인 패션을 함께 소개하는 협업 무대를 만드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4



5

LA 한인 사회도 30주년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인회 관계자는 "올해 아시아인 증오범죄 규탄 캠페인을 계기로 한인·흑인 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유대를 강화했다"며 "한인·흑인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1. LA 한인회와 퍼스트 아프리카인 감리교회 주최로 4월 29일 열린 포럼에서 한인·흑인 분야별 리더들이 손을 맞대는 모습.
2. 한인과 흑인 학생들이 참여했던 LA 폭동 발발 25주년 평화대행진.
3. LA 문화원이 한인·흑인 문화교류를 위해 개최한 '하모니 인 LA' 공연.
4.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의 인종학 학습지도안에 소개된 LA 폭동 당시 동영상 자료.
5. LA시가 주최한 한인·흑인 협력 온라인 토론회.



캐나다 동포 최등용 대표, 한인 양로원에 100만달러 기부 양로원 인수 한인사회 최대 숙원, “나눔문화 활성화 기대”

캐나다에 사는 한인 동포 최등용 씨가 현지의 한인 전용인 ‘무궁화 양로원’을 다시 인수하고자 최근 100만 달러(약 11억 원)의 거액을 기부했다. 이 양로원을 재인수하려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도헌)에 따르면 최 대표는 양로원 재인수 기금에 써달라며 최근 100만 달러를 쾌척했다. 현지 한인으로는 최대 규모 기부다.

최 대표는 캐나다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 커뮤니티보다 역사가 짧은 한인사회의 발전이 더딘 게 늘 안타까웠다”며 “이번 기부로 차세대를 포함해 한인사회에 나눔문화가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외대를 졸업한 뒤 1969년 이민한 그는 1975년 키치너·워털루에 하드웨어·가구 유통업체를 설립해 견경 회사로 키웠다.

그동안 캐나다 한인장학재단, 스코필드 장학재단, 도널드 최 장학회, 불교인회 등 여러 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에글린튼 애비뉴 웨스트에 있는 불교회관도 전액 그의 기부금으로 건립했다.

최 대표 등 한인사회의 기부로 재인수 기금은 현재 400만 달러(약 45억 원) 정도 쌓였다. 목표액(450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뒀던 한인사회 최대 숙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한인 양로원으로 면허를 취득한 뒤 2005년 모금을 통해 지어진 무궁화양로원은 4년 뒤 입주를 시작했다. 60개 침상과 함께 평생 임대 아파트 형으로 만든 거주공간이 90개 마련돼 있다.

2011년 70만 달러의 2차 모기지 상환을 체납해 법정관리 체제로 넘어갔고, 2017년 7월 한인들은 양로원을 되찾기 위해 모금 운동을 펼쳐 입찰에 응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지난해 재인수추진위원회가 또 구성됐다. 요양원은 주정부의 고정지원금과 입주자 노인연금, 기타 지역사회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강흥원 호주 시드니 신임 한인회장 “한인회 재정 독립 힘쓸 것” ‘한인회 대변인제’ 도입·한인 문화센터 마련해 위상 강화하겠다

호주 시드니 한인회장에 강흥원(60) 전 호주한인상공인연합회장이 5월 6일 선임됐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후보로 등록한 그에게 33대 회장 당선증을 발부했다. 강 신임회장은 8만여 명의 시드니 한국인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는 “정부 펀드 확보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현 한인회관과 별도로 한인 전용 문화센터 공간 임대를 추진하며, ‘한인회 대변인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인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한인들이 사용할 전용 공간 마련, 호주 정부 펀드 확보, 한인회 사무국 독립 토대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 회장은 한인회 재정 독립을 위해 호주 정부 펀드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아내가 오랜 기간 자유당 뉴사우스웨일스



(NSW) 지부에서 활동했고, 정부펀드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기에 특별기구를 구성해 펀드 확보를 전담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인회는 물론 한인 단체나 비영리 기구들이 정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펀드 정보도 제공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한인회 사무국 독립의 토대 마련도 임기 중 실현시킬 주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한인회 사무국 독립은 한인사회를 위한 역할의 다양성, 한인회장단의 대외활동 주력, 한인회의 업무 연속성, 차세대 한인들의 공동체 공헌 기회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영화 연출을 하다 1985년 호주에 이민한 그는 10여 년 동안 뉴스에이전시를 운영하다 현재 주류 총판과 부동산 투자업을 하고 있다. 한인대한축구협회장, 시드니 웨스트라이온스클럽 회장, 한인상공인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부인 크리스티나 강 씨는 지난 3월 NSW주 총선에서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었다.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 참여 광고 영상 ‘폴리 어워즈’ 수상 한국어도 녹음, “지지자 당선, 한인 정치력 신장에 도움”

강석희 전 미국 어바인 시장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 광고가 정치 광고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폴리 어워즈’(The Pollie Awards)에서 외국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 전 시장은 5월 11일 “전미 정치컨설턴트협회는 최근 ‘2021년 폴리 어워드’ 행사를 열었다”며 “올해 1월 열렸던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후보를 지지하는 한국어와 영상 광고물이 최우수 외국어 상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정치 광고회사인 ‘J&Z 스트레티지’가 제작한 이 광고(youtu.be/hcy8Anw4ls)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진실과 정확한 사실, 해답은 과학입니다”라는 한국어 카피로 시작된다. 그러면서 라파엘 워녹과 존 오소프는 진정한 연방 상원 후보들이라고 소개한다. 이어 “그들은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를 초월한 우리의 안전과 조지아주의 단결, 코로나 퇴치와 미국을 치료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두 후보는 이 광고에 힘입어 모두 당선됐고,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조지아주 내 한인 표를 얻는 데 역할을 한 것이다.

강 전 시장은 “이 선거는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했고, 이 역사적인 선거에서 한인사회를 대표해 역할을 했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 광고의 한국어 버전뿐 아니라 영어 버전의 내레이션도 맡았다.

그는 1977년 고려대 졸업 후 미국에 이민해 전자제품 유통회사에 근무하다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목격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을 절감, 정계에 진출했다. 2004년과 2006년 어바인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8년에는 한인 최초 직선 시장에 올랐으며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장**



박병석 국회의장 “러시아 16만 고려인 정체성 유지 지원”

간담회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희생과 헌신 기억”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23일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고려인 동포 대표를 만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 의장은 이날 모스크바 롯데 호텔에서 진행된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며 “독립유공자 후손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국회를 대표해서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16만 고려인 동포들을 향해서도 “역사의 질곡 속에서 러시아에 당당히 뿌리내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인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러시아인으로서 당당히 많은 분들이 주류사회에 편입되기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돼 일제의 침략상과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알린 이위중 선생의 증손녀 울리아 피스쿨로바 씨, 연해주 항일운동의 대부로 일본군에 총살된 최재형 선생의 증손자 알렉산드르 사루코프 씨,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 고려인 연합회장, 천 발렌틴 고려인신문 편집장, 배 파벨 모스크바청년 고려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역사학자인 피스쿨로바 씨는 대한제국의 초대 주러 전권공사 출신으로, 일본의 국권 찬탈에 울분을 토하며 자결한 이위중 선생의 부친 이범진 열사에 대해 자신이 쓴 책 ‘끝나지 않은 길’ 등을 박 의장에게 선물했다.

피스쿨로바 씨는 “독립유공자후손협회를 대표해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미 건국훈장을 수여한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을 찾는 작업과 독립운동가들의 일제강점기 활동을 차세대에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루코프 씨도 최재형 선생에 대해 쓴 책 등을 박 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확산으로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식을 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조 바실리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고려인 청년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기업의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천 발렌틴 편집장은 “고려인신문의 가장 큰 과제가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유지”라며 “독립국가연합(CIS)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문제와 노동현장의 차별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어 교육 지원과 한국 취업 문제와 관련해 개선할 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 독립유공자와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웅래 의원은 “재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뿌리 의식을 갖게 하는 건 고국의 책임이고 소명이므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창

한국 공군의 뿌리 '윌로우스 비행학교' 사진 첫 공개 1920년대 美 캘리포니아서 한인청년 비행가 양성

독립기념관은 5월 13일 한국 공군의 뿌리인 '윌로우스 비행학교' 등 미주지역 독립운동 사진 60점을 최초로 공개했다.

윌로우스 한인비행학교는 임시정부가 항공 독립운동을 위한 조종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다. 초대 군무총장인 노백린 장군 주도하에 재미동포 김종림 애국지사의 재정지원으로 1920년 7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됐다.

당시 김 씨는 노 장군을 만나 비행학교 설립 자금으로 2만 달러를 지원한 뒤 매달 3천 달러씩 운영자금을 댔다. 당시 현지 신문 '윌로스데일리 저널'은 "쌀농사로 부자가 된 한국인 김종림이 한인 청년들에게 조종술을 가르치기 위해 비행장을 설치한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활주로를 만들 16만2천㎡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교관 1명과 정비사 2명을 채용하고 학생도 모집해놓았다. 이곳에서 한인청년들이 군사교육과 함께 일제와의 공중전을 위한 비행술을 배웠다. 1923년까지 졸업생 77명을 배출했다. 특히 N-4D 2대를 이용선·이초 두 사람이 조종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교사(校舍)는 1918년 폐교된 '퀸트학교' 건물을 임대해 사용했고, 이 건물은 현재 다른 곳으로 옮겨져 일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은 독립유공자 임성실(1882~1947년) 선생 가족 사진첩에서 찾아냈다. 이를 임 선생의 증손녀 마르샤 오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임성실 선생은 미주지역 여성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여자애국단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독립기념관은 "이 사진들은 1920년 당시 비행학교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것으로, 비행학교 건물을 복원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기념 조형물 제막식' (왼쪽). 독립기념관에 전시중인 미국 윌로우스 한인비행학교 소식을 담은 '독립신문' (1920).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이 사진 외에도 여러 사진을 공개했다. 제1차 세계대전 기념일 퍼레이드 기념식,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참가 한국 선수단, 도산 안창호 등 독립운동 가족,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대회 사진 등 모두 647점을 공개했다.

한편 공군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김포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한인비행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기념 조형물'을 설치했다.

기념조형물은 1920년 한인비행학교 개교 당시 촬영된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Standard(스탠더드) J-1' 훈련기 1대와 비행사 10명의 모습이 재현됐다. 조형물 하단에는 한인비행학교와 노백린 장군 소개 등이 새겨졌다.

학생비행사였던 박희성 참위가 1921년 5월 미국국제항공클럽으로부터 국제비행사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임시정부 최초의 비행 장교로 임명됐다.

공군본부 "한인비행학교가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라며 "항공 선각자의 송고한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미국서 독립운동자금 지원 하희옥 선생 국립현충원 안장

대한인국민회 · 흥사단 활동, 6·25때는 구호품 모국에 전달

미국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된 하희옥 선생이 국립현충원에서 영면하게됐다. 국가보훈처는 5월 3일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쓴 하희옥 독립운동가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고 밝혔다.

1890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난 선생은 18세까지 고향 서당을 다니다가 1908년 광동학교, 의명학교에서 수학 후 도산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에 진학했다.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1912년 북간도로 건너가 간민회 등 독립운동 단체에서 결사대로 활동했다.

1915년에는 만주에 세워진 항일 독립군을 양성하는 무관학교에 입학했다가 뜻이 맞지 않아 몇몇 동지들과 191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다. 그는 미국생활 초창기 포도농장 품팔이에 종사하면서 대한인국민회 상항지방회에서 활동하다가 1917년 흥사단에 입단했다. 이후 아크론, 뉴욕, 시카고 지방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1925년부터 1947년까지 향료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하희옥 선생은 아내인 최재문이 별세하자 고국에서 흥사단 활동을 하기 위해 55년간 살아온 미국을 등지고 1967년에 귀국했다. 이후, 국내 단우들과 형제처럼 지내며 휴면단우 심방, 청소년수련관 건립기금모금 활동을 하며 흥사단 발전에 힘을 쏟았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동포사회에서 여러 번 모금 운동을 전개해 고국에 구제금과 구호품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공적 등으로 2015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선생은 그간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장을 전달할 수 없었고, 묘소 위치도 몰랐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1978



하희옥 독립유공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하희옥 애국지사 안장식에서 의전단이 영현과 유해를 묘역으로 봉송하고 있다.

년 사망해 경기 용인 공원묘지에 안장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 갑)과 함께 선생의 후손을 찾는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선생의 공적과 관련된 흥사단, 시카고 한인회 등을 통해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고, 국내 제적등본 조회 등을 거쳐 선생의 후손 확인 작업을 마쳤다.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유족대표(김하주·외손녀)의 요청으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이 결정됐다. 아울러 정부가 보관 중이던 선생의 대통령 표창도 최근 후손 중 최고 연장자인 김영주(외손녀·미국 거주) 씨에게 LA총영사관에서 전수했다.

선생의 유해는 3일 오전 경기도 용인 공원묘지에서 이장 절차를 통해 대전현충원의 독립유공자 제5묘역으로 봉송되어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안장식이 진행됐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후손 찾기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

‘美 조지아주, 영향력 있는 아시안 25인’ 에 김순원 씨 선정

한인 휴대폰 대리점 업계 1위 회사 · 직원 · 고객 만족으로 성장

미국 조지아주가 선정하는 ‘2021 조지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 25인’ 에 김순원(42) 슈프림 와이어리스 대표가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조지아주는 매년 비즈니스, 교육, 지역사회 봉사,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아시아계 미국인 25명을 선정, 수상한다.

조지아주는 김 대표가 2005년 세계한인무역협회 애틀랜타 지회에서 ‘차세대 창업 무역스쿨’을 수료했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에서 차세대 인재 육성에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저보다 앞선 한인 선배들을 만나 배우고 받은 것을 후배에게 전해주고 이어간 것뿐인데 이렇게 값진 상을 줘 감사하다”며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해 재미동포사회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4대 통신사의 하나인 T모바일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등에서 100여 개 운영하면서 한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가 2009년 창업 이래로 지켜온 경영 방침은 ‘가격을 낮춰 고객 부담을 줄이고, 이익은 직원과 나누는 등 수익률보다는 더불어 살아가기’다.

군대를 마친 2002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조지아공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던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3학년 때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BHU대학으로 옮겨 국제경제학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부모에게 손을 안 벌리려고 유학 초창기부터 식당 서빙, 청소대행, 인쇄 택배, 신문 배달, 잡지 광고, 이삿짐 나르기 등 10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한 경험을 쌓으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 노하우가 생긴 그는 졸업 후 애틀랜타주의 화장품회사에서 구매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부업을 병행했다.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와 한인 고객을 상대로 기업을 홍보하는 다이렉트마케팅 회사를 차린 것이다. 이 회사들은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지만 덕분에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

2006년 T모바일의 대리점총판 회사로 이직한 그는 구매와 발주 시스템을 전산화시키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3년 뒤에는 필라델피아와 뉴저지에 세우는 대리점을 책임지는 사업 파트너가 됐다. 2016년에는 T모바일의 대리점총판 중에 전국 1위 기업에 올라서는 수완을 발휘했다.

기업의 성장 목표를 묻자 김 대표는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소속원 모두가 행복감을 갖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사업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책임 있는 파트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들과 동반 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아시안 이민 역사 가르치자” 미 정계·한인들 움직임

애틀랜타 총격 계기로 “역사 알아야 차별 없다” 목소리

미국 조지아주와 일리노이주 한인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과과목에 아시안 이민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계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모두 8명이 속한 지난 3월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아시아 혐오범죄를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리노이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 평등 교육법안’을 심사 중이다. 공립학교 정규과목에 아시아계의 역사와 인구, 미국 사회 기여 현황 등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애틀랜타 아시안 대상 범죄 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14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아시안 역사, 공립학교 정규과목 의무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5월 1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아시안 역사 공립학교 정규과목 의무화 공청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캐럴린 보르도 연방 하원의원, 미셸 오 조지아주 상원의원,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함께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들인 캐런 왓킨스와 테리스 존슨 등 교육계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보르도 연방 하원의원은 “아시안 역사는 미국인의 역사다. 공립학교 정규과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계인 박 의원도 “아시안 역사를 정규과목에 포함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소 주립대 안소현 교수는 “미국에서는 대규모 전염병과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민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뿌리 찾는 멕시코 한인 후손들에 한국 이름 지어 드려요”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한국 이민자의 날’ 맞아 작명 행사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은 5월 4일 ‘한국 이민자의 날’을 맞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국 이름 작명 행사를 시작했다.

올해 멕시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제정된 ‘한국 이민자의 날’은 1905년 1천여 명의 한인 1세대가 멕시코에 첫발을 디딘 것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멕시코 전역에는 이들의 후손 3만 명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지와 동화됐다. 그러나 일부는 김, 이, 박과 같은 한국 성씨를 여전히 따르고 있으며, 한인후손회를 조직해 정체성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멕시코 내 한인후손회와 협력해 한국 이름을 희망하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은 5월 4일 ‘한국 이민자의 날’을 맞아 한인 후손에 한국 이름 짓어주기 행사를 시작했다.

는 후손들을 조사한다. 이후 이들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이름을 지어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이름을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이름에 담긴 뜻과 작명 배경도 설명한다.

박영두 문화원장은 “후손들에게 한국식 이름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제대로 된 작명과정을 거치려 한다”며 “희망자가 많으면 내년 이후에도 행사를 진행해 원하는 모든 이들이 한국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수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 회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민 1세대 조사를 통해 발굴한 선조들의 한글 이름과 고향 정보가 이름 짓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후손들이 한국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행사를 기획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아공 60세 이상 한인 속속 현지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무료, 남아공한인회 비상연락망 가동해 접종 권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60세 이상 되는 한인들이 속속 현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남아공 경제중심 요하네스버그 거주 한인 이동민(62) 씨는 “25일 한인 3명과 함께 소웨토 바라크와나스 공립병원에 가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라며 “다른 한국인 3명도 우리가 맞은 곳에서 접종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사전에 정부사이트(EVDS)에 등록하면 접종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비용은 무료라고 한다. 이 씨는 남아공한인회 비상연락망 카톡방에 자신의 접종기를 올리면서 가급적 빨리 접종하도록 권했다.

앞서 다른 한인들도 차례로 자신의 접종사실을 주변에 알려왔



요하네스버그 근교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인증샷 사진을 찍은 교민 이동민 씨

다. 또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더 자세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글도 동포 단톡방에 올라왔다. 남아공은 고령자 500만 명을 6월 말까지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도권 하우텡주에서는 이미 3차 감염 파동이 시작된 것을 비롯해 남아공은 겨울철로 접어든 요즘 다시 확산세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신규 확진자는 최근 하루 2천~4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163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5만5천 명 이상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코로나19

타격이 심한 남아공 접종률은 인구대비 0.8%밖에 안 된다. 세계 평균 접종률은 5.1%대이다.

홍콩한인상공회, 홍콩 쇼핑박람회서 유일 국가관 운영

코로나19로 1년여만에 대규모 행사 “한국 제품 인기”

홍콩한인상공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1년여만에 홍콩에서 열리는 대규모 쇼핑박람회에서 국가관을 운영했다.

홍콩한인상공회는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라이프스타일 쇼핑페스트’ (Lifestyle ShoppingFest)에서 유일하게 국가관인 ‘코리안 스트리트’ (Korean Street)를 운영했다.

홍콩무역발전국(HKTD)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는 홍콩 국내외 400여개 업체가 참여한 대규모 쇼핑 박람회다. 세계 별미, 보석, 패션, 화장품, 헬스케어 등 8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서 국가관은 한국관이 유일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프스타일 쇼핑페스트’에 차려진 한국관에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

나정주 회장은 “국가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한국 제품이 각기 흩어져서 배치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다”며 “홍콩에서 한국 제품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쇼핑객들이 둘러보면서 더 많은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한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홍콩업체도 참여했고 화장품, 방역제품, 주방기구 등 다양한

한국 제품이 판매됐다며 “1년여 만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였던 만큼 한국 제품 홍보의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상공회는 이와 함께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가온’의 창단 연주회를 박람회 무대에서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사할린 타악기팀 '고려', 모스크바 경연서 그랑프리 수상

'민속' 부문서 풍물놀이로 호평 "고려인 전통에 자부심"

사할린주 한민족 예술학교인 '에트노스' (민족)가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경연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를 받았다.

한인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에트노스의 타악기팀 '고려' (지도교사 신율리아, 반주자 박완순 교사)는 이 대회에서 풍물놀이 판굿을 펼쳤다. 이 대회는 통합 러시아 당위원회, 러시아 연방 두마의회, 러시아 연방 문화부가 주최한 '제149회 러시아의 단결' 축제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고려'는 이 경연대회의 '민속'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5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와 연합독립국의 50개 도시에서 1천500여 명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심사는 러시아 교수와 연방 문화·예술계 공로자들이 맡았다.



수상 후 기념 촬영하는 사할린 타악기팀 '고려' 팀원들

'고려'는 나흘 동안 '러시아의 국보'와 '승리의 나라'라는 두 경연에 참가해 무용, 보컬, 악기 연주 부문에서 솜씨를 뽐냈고, 모두 1등에 올라 그랑프리를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에트노스 한국전통예술학과 과장인 신율리아 교사는 "두 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랑프리까지 받아 기뻐다"고 전했다.

이 학과는 교사 15명이 14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은 한국 무용을 비롯해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 단소, 소금, 태평소, 타악기 등을 배운다. 그밖에 민요는 물론 한국 역사와 문화도 익힌다.

신 교사는 "에트노스는 한인 3~4세대의 자랑이고, 민족의 얼과 혼을 일깨워준 큰 배움터"라고 소개했다.

대전컨벤션센터서 동포경제인 '세계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병행 대전 충남지역 中企와 청년에게 해외진출 판로 개척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연합뉴스 공동 주최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렸다.

'한인 경제인과 세계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공유가치를 실현하다'라는 주제의 행사로 세계 68개국, 143개 도시에서 750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월드옥타에서는 하용화 회장을 비롯해 이영현·김주재 명예회장, 남기학 수석부회장, 김부향 부이사장, 김주연 감사, 황희재·이경중·주대석·이영중·박효은·오병문 등 부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또 김성학 이사장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회원 100여 명과 함



온·오프 병행으로 열린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폐막식

께 온라인으로, 조병태·정진철·천용수·고석화·권병하·박기출 등 명예 회장도 화상으로 각각 참여했다.

수출상담회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6~27일 80개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월드옥타 27개국 43개 지회에서 246개 회원사가 참여해 250여 건의 상담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쇼케이스도 열어 615억 원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대전과 인근지역 청년 15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한 취업설명회도 열렸다. 월드옥타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지회에서 해외 취업 환경과 취업 노하우를 전했고 미국·일본의 8개 한인 기업의 채용설명회도 열렸다. 참가한 청년 중 50여 명은 일대일 취업 컨설팅도 받았다. [▶](#)



美워싱턴주 스포캔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선다

미국 워싱턴주 스포캔시에 6월 27일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다고 스포캔한인회(회장 신원택)가 전했다. 스포캔시 당국과 현지 한인사회를 비롯한 시애틀 총영사관, 서북미연합회, 시애틀한인회 전직 회장단 모임 등이 건립비 모금에 동참해 5만5천 달러를 모았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인 이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경영대 초빙교수는 1만 달러를 쾌척했다. 스포캔한인회는 그동안 한국전쟁 발발일에 즈음해 참전용사들을 '재향 군인의 집'에 초청해 선물을 증정하고 위로하는 행사도 열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장에 조요섭 전 수석부회장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는 최근 선거에서 조요섭 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3만여 명의 한인을 대표한다. 조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센터 운영을 비롯해 '청년위원회' 신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복지 상담 서비스 운영, 무료 사랑의 식료품 제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민속 전통 행사 유지 발전 등을 약속했다. 인하대 체육교육과 졸업 후 씨름 선수로 활동했던 그는 1999년 뉴질랜드에 이민해 건강원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12대 한인회 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봉사했다.

재외동포연구원,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토론회 개최

재외동포연구원은 5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열린 대한민국의 플랫폼,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국내 재외동포법과 정책 이슈를 진단하고 새로운 법제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임채완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을 비롯해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희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동만 전 재외동포 영사대사,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이상걸 대통령직속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 객채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7회 브라질 한인 청소년 꿈 발표 제전 개최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원장 오정민)은 다음 달 '제7회 브라질 한인 청소년 꿈 발표 제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참가 자격은 브라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동포 자녀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교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1단계로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동영상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15명의 입상자를 선정하며, 2단계로는 온라인 면접을 통해 수상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1등에게는 2천 헤알(약 42만5천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공동 주관단체인 나의 꿈 국제재단(이사장 손창현)으로부터 장학사 자격을 받는다.

베를린 한인들, 5·18항쟁 41주기 기념 민중제 열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한인들이 5월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기념해 민중제를 열었다. 재유럽 5.18 민중항쟁협의회가 온라인으로 행사를 주최했다.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렸던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아내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박사는 이날 "남편이 삼엄한 봉쇄를 뚫고 서울에서 광주로 들어가 촬영한 증거물들을 과자상자에 숨겨서 밀반출했던 헌신이 없었다면, 세상은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민중항쟁의 진실과 그 배경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진스님이 '오월에서 한반도의 평화로'를 주제로 강연을 했고, 국악 공연이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에 강제 이주 고려인 문화관 개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의 고려인 마을(대표 신소야)에 고려인의 삶과 역사·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월곡고려인문화관'이 5월 20일 문을 열었다. 문화관은 1층에 고려인의 강제 이주와 항일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설 전시실인 '숨결'과 지역민 소통관인 '금(金)결'이 들어섰다. 2층에는 지난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국가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고려인 창가집·고려극장 사진첩 등 23점을 소개하는 전시실과 2만여 점의 고려인 유물 수장고, 기획전시실이 마련됐다. 특별전시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됐던 '고려사범대' 소개 특별전이 열렸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연해주의 고려인 대표적 정착지 푸칠로프카 학교에 역사 기념관

유적 곳곳에,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 조명희 교편 잡았던 학교도

차를 타고 러시아 연해주(州) 블라디보스토크 도심을 벗어나 북쪽으로 2시간 30분가량을 내달려 도착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 인구가 500명을 조금 웃도는 우수리스크 지역의 푸칠로프카(육성촌·六城村)다.

이 마을은 러시아 고려인(옛 소련권 토착 한인) 이민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한인 정착지다. 1869년 마을이 조성됐다.

당시 니콜리스크(현재 우수리스크)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러시아화 된 지역이었다.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가 이뤄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었다.

고려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마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남아 있었다. 마을 중심부 학교(쉬콜라) 건물 뒷마당만 가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당에는 고려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맷돌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이 학교의 건물 2층에는 고려인들과 마을의 인연을 설명하는 작은 전시관이 있다. 2007년에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20㎡ 규모의 전시관에는 고려인과 관련한 각종 사진과 서적 등 200개 정도의 전시물이 보관돼있다.

특히 1874년 발간된 최초의 우리말 대역사전인 '노한사전'을 펴낸 러시아 군인 미하일 파블로비치 푸칠로(1845~1889)에 대한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 자리한 옛 고려인 마을 푸칠로프카 마을 표시판



기념관의 미하일 파블로비치 푸칠로에 대한 자료(위)와 포석 조명희 사진

이 마을의 이름도 푸칠로에서 따온 것이다. 지방관리로 파견된 젊은 군인 푸칠로는 궁핍 등을 피해 이주한 한인들의 연해주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위해선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

었다. 결국, 그는 한인들의 말을 체계적으로 조사, 745쪽에 달하는 노한사전을 만들었다.

충북 진천 출신의 포석(抱石) 조명희(1894~1938)도 푸칠로프카 마을과 인연이 깊다. 그는 일제 수탈의 실상과 한인의 저항을 묘사한 소설 '낙동강' 등을 집필해 한국에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다.

조명희는 1928년 망명 후 이 마을에 세워진 육성촌 농민청년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청년학교 건물은 전시관이 있는 학교 맞은편에 보존돼있다. 푸칠로프카의 학교 전시관을 관리하는 파브페르타바 발렌티나(62)는 "과거에 한국인이 이 건물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건물 주변에는 현재 출입을 막는 담장이 쳐져 있어 내부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고려인들의 묘비들은 이곳이 과거 고려인 마을이었음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역사의 흔적이다.

파브페르타바 발렌티나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한국인들이 전시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해야 한다"면서 작은 전시관이지만 주민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재미동포 주력업종 세탁업, 코로나 직격탄... 한인 폐업 잇따라

세탁업 실업률, 일반보다 월등히 높아... 온라인 모금 운동도

재미동포들의 주력업종인 세탁업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미국 실업률은 14.7%로 치솟았다. 하지만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 자료를 보면 세탁업 종사자의 실업률은 무려 47.5%에 달했다. 얼마나 많은 세탁업소가 폐업했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애틀랜타 노스사이드 드라이브에서 '조이너스 드라이 클리너' 세탁소를 운영하는 문 김 씨는 최근 폐업만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운동까지 벌였다. 기부 사이트인 고평드미(GoFundMe)에서 3천 달러 가까이 모았지만, 가게를 살리기엔 너무 부족하다.

김 씨에 따르면 세탁소 매출은 70%나 줄었으며, 직원들은 일주일에 2, 3일만 출근한다. 그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와 협의 중이며, 미국 연방정부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다. 김 씨는 "그저 살아남으려 버티는 중"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또 다른 세탁업자 제인 배 씨는 최근 조지아주 알파레타에서 30년 동안 운영해온 '그레이스 드라이 클리너'의 문을 닫았다. 밀린 임대료와 청구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10년 이상 배 씨 세탁소에서 일 해온 직원 몇 명이 마지막 영업일까지 함께 했다.

텅 빈 배 씨의 세탁소에는 주인 없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세탁소 입구에 '드라이 클리닝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왼쪽). 미국 세탁소 모습.

셔츠와 재킷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단골 손님 몇 명이 고평드미로 3천여 달러를 모금했지만, 가게를 지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배 씨는 "오랫동안 일했는데 빈손으로 나간다"며 "1년 동안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걱정했다. 이제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세탁업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전미세탁협회 메리 스킨코 최고경영자(CEO)는 "세탁업종의 30%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은 세탁업 쇠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외출이 금지되면

서 교회, 파티, 결혼식 등이 줄었고,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서 양복과 정장 입을 일이 크게 줄었다.

세탁업은 그동안 미국 이민 한인들의 단골 업종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미국 세탁업의 미래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경제연구업체 'BIS월드'의 크리스토퍼 롬바르도 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평상복을 입는 트렌드 탓에 세탁업계가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세탁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미세탁협회 스킨코 CEO는 "올해 여름이면 세탁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창**

재외동포재단, 중남미 지역 한인회장들과 화상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중남미 지역 동포사회 주요 현안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5월 10일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을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11개 한인회장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유영준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을 비롯해 브라질, 멕시코,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 11개 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하여 동포사회 현안을 공유했다. 한인회장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재외국민 백신 접종, 자가격리 기간 단축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칠레, 콜롬비아 등지에서서의 반정부시위로 동포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며 "재단에서도 동포사회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대양주 동포사회와 주요 현안 협의

재외동포재단은 대양주 지역 동포사회 주요현안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5월 12일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을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대양주 지역 동포사회 주류 현안 협의를 위해 화상 간담회를 5월 12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피지의 14개 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하여 한인회관 건립, 참전용사 및 입양동포 지원, 한글학교 활성화, 동포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현안

을 협의했다.

이장흠 뉴질랜드 웰링턴한인회 회장은 "한인회 업무 관련 상호 소통 및 정보 교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며 반겼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사회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단에서도 동포사회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벤처기업협회와 MOU 체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한상 네트워크 및 벤처기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와 5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4층 재외동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

양 기관은 ▲세계한상대회(재외동포재단 주관)와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총회(벤처기업협회 주관) 개최 관련 상호 협력 ▲해외 우수 한인 벤처인 발굴 및 네트워크 공유 등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국내외 우수 한인 벤처기업인을 발굴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재외동포재단, 러시아·CIS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 강화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사회 주요 현안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5월 20일 러시아·CIS 지역 한인회장 및 고려인협회장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를 개최했다.

제8차 러시아·CIS 지역 '찾동' 행사에는 노성준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조바실리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을 비롯한 18명의 전·현직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러시아·CIS 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고려인 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의료봉사 파견 등 현안 및 요청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재외동포재단은 5월 20일 러시아·CIS 지역 한인회장 및 고려인협회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러시아·CIS 지역은 재외동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한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여 재외동포사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러시아·CIS 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미국 한인사회와 주요 현안 논의

재외동포재단은 5월 24~27일 동포사회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지역 한인회장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미국 동포사회 현안 논의를 위해 동부, 중부, 서부 지역으로 나눠서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지역 '찾동' 행사는 한인회 수를 고려하여 동부지역 2회, 중부, 서부로 나누어 네 번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총 66명의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한인회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인회 활동 등 정보를 나누고, 아시아 혐오범죄 대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차세대 참여를 위한 노력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미주 총연 통합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사론 황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은 "재단과 미국 지역 한인회장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국가와 인권의 관점에서 평화선을 다시 본다

논형 / 최영호

1952년에서 1965년까지 한반도에서 어업 활동은 외교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반도 어업 활동에 영향을 끼친 국제적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일본, 한국인 어민의 식민지 해방과 국가 독립에 관한 인식 차이가 어떻게 국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평화선 문제의 배경으로 독도 문제와 일본 어민의 역류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밝혔다. 또한 외교적 결과로 진행된 어업 협정에 대해 외교 사료를 통해 날카롭게 밝히고 있다. 수년간 진행된 외교적 상황을 통해 양국 사회에 어민과 어업정책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자.



죽어서도 쉬이 못 오는 귀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과 미귀환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오일환

전후 한일관계하에서 중국, 소련, 북한의 인질 협상을 둘러싼 연구를 진행해오던 연구자가 일제강점기하의 강제동원과 미귀환문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현실적으로 맞닿은 외교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제동원과 귀환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게 되었다. 그간의 연구를 엮은 도서가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강제동원과 미귀환의 문제에서부터, 오키나와와 사할린의 참상을 살펴보고, 낯선 땅에 묻힌 채 죽어서 유해가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동포들의 아픔을 진단한다.



마지막 떨어진 별(The Last Fallen Star)

김성은

뉴질랜드 외교관으로 근무 중인 한인 동포가 판타지 소설 3부작을 출간 하였다. 미국 로스 앤젤레스를 배경으로 도깨비, 천리마, 인면조 등 한국 신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정체성과 소속감을 찾는 내용의 판타지 소설이다. 위험에 빠진 언니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서, 자기의 정체성도 찾게 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판타지 소설로 나타난 한국 신화 모티브와 한인의 정체성, 문화권의 융합을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해외입양동포 대상 간담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인규)은 5월 13일 주요 입양 기관을 초대해 해외 입양 동포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정책 등을 홍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간담회에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해외입양인연대 등 국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운영 기관 7곳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복수국적제도와 국적회복제도 등 해외 입양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어릴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외국 국적 보유자가 국내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국내 구직 방법 등을 알렸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해당 기관과 협력해 국외 입양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국적회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재단, ‘아프리카의 날’ 문화제 풍성

한·아프리카재단은 5월 25일 ‘아프리카의 날’을 기념해 영화제와 문화 공연 등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한다.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여는 이 행사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물고 인식을 개선하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이 추천한 영화 10편을 상영하는 아프리카영화제는 네이버 TV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날을 즐기는 5가지 방법’을 주제로 진행하는 아프리카 문화마당에는 아프리카 전통 미술과 문학, 음악, 식문화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재단 유튜브로 공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치른다.

KF, 각국 싱크탱크와 ‘녹색 회복’ 협력 세미나 개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 녹색 회복을 향해’를 주제로 주요국 싱크탱크와 온라인 세미나(2021 KF Virtual Dialogue Series)를 5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한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 미국, 호주 현지 싱크탱크와 공동기획한 행사로 국가 간 경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첫날 20일에는 덴마크 비영리 환경클러스터인 클린클러스터와, 주한 덴마크대사관, 덴마크 기업청,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해 양국의 ‘순환 경제’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6월 3일에는 독일의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녹색전환’을 주제로 양국 에너지 정책과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6월 10일 스웨덴 정책연구소, 6월 17일 미국 하버드 벨퍼센터, 7월 1일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와 각각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와 경제회복’, ‘녹색 회복’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코이카, 캄보디아 포용적 비즈니스로 ‘사회혁신 파트너십상’ 수상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캄보디아 현지 파트너 기업인 ‘헤세드’(HESED)가 최근 대만 경제부가 주최한 ‘2021 아시아·태평양 사회혁신 파트너십 어워드’(APSIPA)에서 ‘팜수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으로 포용적 비즈니스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이카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캄보디아 파트너 기업인 ‘헤세드’의 팜수가 농장.

최종 우승자로 뽑힌 헤세드는 캄보디아 농민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팜수가 농업의 고질적인 위생·품질·유통 문제를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헤세드는 이번 수상으로 사회혁신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가장 권위 있는 행사인 아시아·태평양사회혁신시밋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한인회



한동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고문,
전 필리핀대사

작년 11월말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많은 해외 한인 단체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한인단체는 위기 때마다 단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해외에서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그 후에도 재외동포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사회를 돕기 위해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때마다 김성곤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 놓인 동포가 늘어 한인회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소통강화와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한인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재외동포들은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각국 정부에 전달하고 우리의 우수한 방역성적을 홍보하는데 앞장섰다. 보건협력을 위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통해 주재국 정부와 긴밀한 결속을 강화하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필리핀의 경우 변재홍 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진단키트를 록신 외교부장관에게 전달했고 한국군 참전용사들에게도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천 명의 동포가 귀국하고 다시 은퇴비자를 소유한 약 800여명의 동포가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의 지지를 얻어냈다.

둘째는 어려운 현지사회를 도운 일이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지상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단체들은 더 어려운 현지 주민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식당이나 사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해고하는 대신, 오히려 생필품을 전달하고, 마닐라에 위치한 말라테 한인자율 파출소에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훈훈한 나눔의 봉사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격언을 실천해 필리핀 사회에 큰 감동을 안겼다.

셋째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포들에게 긴급구호 식품을 전달한 일이다. 재외동포재단의 후원과 함께 동포단체들이 성금을 모아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동포들에게 쌀, 라면, 김치, 알코올,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품을 가가호호 방문해 전달하고 위로해 격려와 성원을 받았다. 한인회 등 많은 동포단체들도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하여 더 어려운 동포들을 돕는 데 일심 단결하고, 직접 전달하는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재외동포재단, 대사관, 동포단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이다. 소·화·제(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가 작은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장]**



재외동포 경제단체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공개정보

- 단체명(국/영문)
- 단체장명 / 사진
- 단체 설립일
- 단체 회원수
- 단체 이메일
- 단체 연락처
- 단체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각 국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재외동포 경제단체 정보를 수집해 재외동포재단 코리아넷(www.korean.net)과 한상넷(www.hansang.net)에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표기해 놓은 구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편집을 통해 코리아넷, 한상넷 내 '재외동포 경제단체 총람'으로 공개서비스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 코리아넷, 한상넷 재외동포경제단체 정보 제공에 참여하시고 싶은 단체는 한상넷 담당자 이메일(leeaejj@okf.or.kr)로 정보 제공 협조 요청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교사 위한 '역사 문화 연수' 콘텐츠 제공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 문화 수업에 참고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연수' 콘텐츠를 스티디코리아(m.study.korean.net) 사이트에서 신규 제공합니다.

주요 콘텐츠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 농경생활, 단오, 고유명절 등 한국의 풍습을 비롯해 세종대왕, 영조 등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조상들의 여름나기, 겨울나기 등이 소개됩니다. 또 이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을 위한 지침서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역사 문화 연수
수강 바로 가기 >>>

• 연수 과정 목차 •

01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과 농경생활	06 조선시대 문예(서화, 사대화)
02 단오	07 여름 안초 그리고 가을 시조시
03 가을 풍년 기념	08 조선왕조(세종)기
04 영조와 방곡, 귀족의 문인	09 조선의학(고종실록, 경술모듬, 고종실록)
05 한국의 겨울나기	10 겨울의 시작

5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 김성곤 이사장**
- 5월 11일: 재미과학기술자협회 화상미팅 참석
 - 5월 21일: 벤처기업협회 MOU 체결식 참석
 - 5월 27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및 세계한상리딩CEO 오찬 참석
 - 5월 25일: 세계한인무역협회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오찬 시행
 - '찾아가는 재외동포재단(찾동)' 화상 간담회 : 대양주(5월 12일), 러시아·CIS(5월 20일), 미국 동부·중부·서부(5월 24~27일)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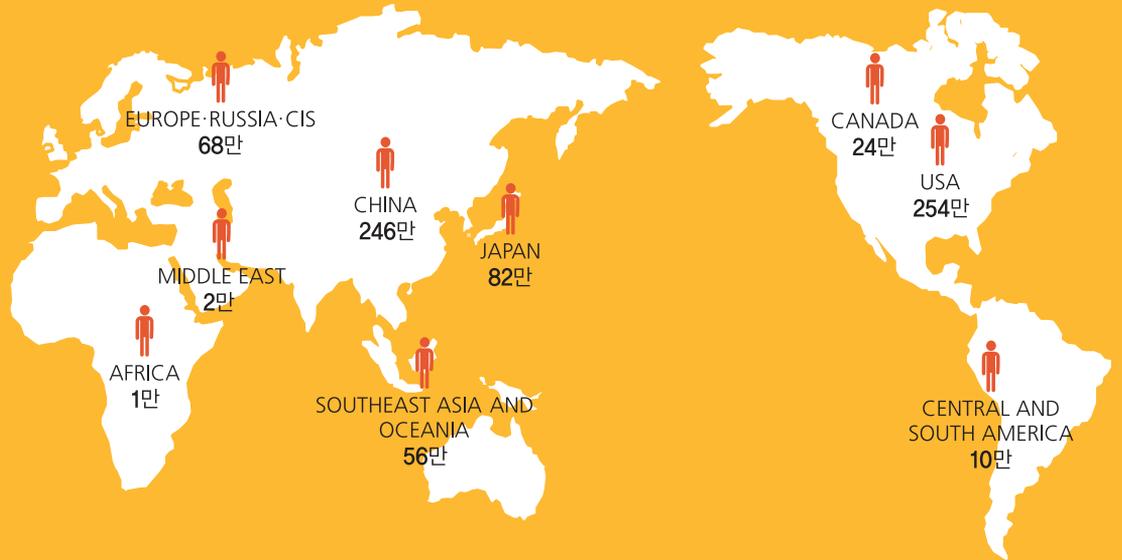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